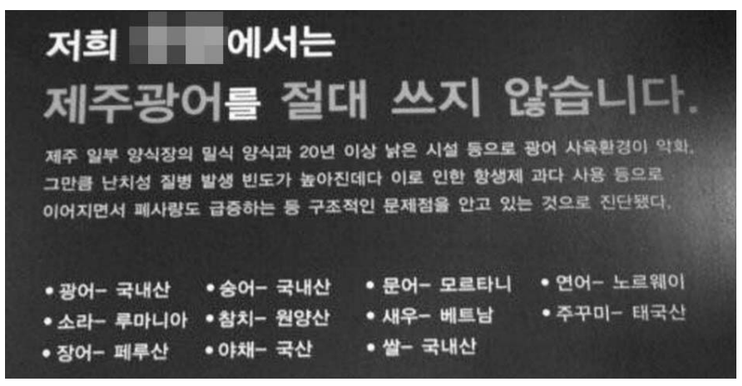
# 제주광어 어쩌다… 일부서 불매운동 번져

### 항생제 투입 흔적으로 인해 국내 소비시장 최하품 전락 "제주산 안 써" 업소 등장

### "백신 사용 고기는 소비 호황 대부분 주사사용 위기 자초"

### 제주도 뒤늦게 특별단속 매뉴얼 보급 등도 계획




주사를 이용해 항생제를 투여한 제주산 광어가 시장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불신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한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통해 제주산 광어를 쓰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저희 00에선 제주광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포항 소재 00횟집)" "저희 점포는 제주산이 아닌 좀 더 질 좋은 완도산 광어만 사용합니다.(전국 체인망을 갖춘 00초밥 전문점)"

'대한민국 세계일류상품'으로 홍보하는 제주광어가 주사제(항생제)를 투입한 흔적을 남긴 채 전국에 유통되면서 국내 소비시장에서조차 최하품으로 전락해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횟감과 초밥용으로 광어 활어를 이용하는 음식점 중에서 메뉴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제주산 광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업소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소 중에는 "제주 일부 양식장의 밀식 양식과 20년 이상 낡은 시설 등으로 광어 사육환경이 악화되고, 난치성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데다 이로 인한 항생제 과다 사용 등으로 이어지면서 폐사량도 급증"과 같이 제주산 광어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곳까지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수질 악화와 밀식 양식 등으로 광어 질병률이 높아지자 양식업자들이 주사를 이용해 항생제를 투입한 활어를 일부 유통시키고 있다. 휴약기간(약 20일)이 지나면 항생제는 어체에서 빠져나가지만 주삿바늘 때문에 생긴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이 상처가 곪아 고름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제주산 광어를 고발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내 한 양식업자는 "백신을 쓰는 양식장은 안전성을 인정받아 고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이지만 도내 양식장 중 약 90%는 주사제를 이용해 도내 광어 양식산업 전체를 위기에 내몰고 있다"며 "관리가 어려운 대형 양식장일수록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빨리 내기 위해 주사만 투여하는 이른바 '아줌마부대'까지 고용하는 실정이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사제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광어용 항생제는 수산용의약품으로 허가돼 수산질병관리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주사법을 교육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라며 "17일부터 제주항 진입로에서 광어 유통 수조차를 대상으로 항생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년간 모든 행·재정적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광어 양식장의 수질개선 문제를 해소하고 무항생제 광어를 생산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오염물질을 제거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진행한 이 실증시험은 올해 연말쯤에나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당분간 소비시장에서 제주광어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정부 광고사무 시·도로 이양해야"

### 대신협 제3차 사장단 회의 광고수수료 폐지 등도 대응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가 정부의 광고사무의 시·도 이양과 대행수수료 과다규제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협은 13일 강원랜드에서 2019년도 제3차 사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문화관광부 광고사무의 지방이양사무 이관, 광고대행수수료 10% 공제 폐지 또는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광고사무 정책 개선안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

앞서 대신협은 지난 3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대상 사무 선정 추진을 건의했다.

또 포털의 지역뉴스 노출 증대 방안인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지역일간신문 뉴스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공동 협력을 결의했다.

대신협은 한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등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대신협 24개 회원사는 각 신문사 홈페이지 하단의 회원사간 연계 링크 추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중석 회장은 "정부의 지난친 시장 개입은 규제개혁과도 맞지 않는 만큼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개선안 도출을 위해 대신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 도립예술단 '특별전형' 공정성 논란 해소할까

### 도의회 문광위, 조례 개정

단독 추천으로 진행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제주도립예술단 특별전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최근 논란이 된 도립예술단 특별전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원안 가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특별전형 최종 추천을 하게 되는 대상자를 최소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전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전형 대상자는 기존 예술단 운영기관장 1명 추천에서, 예술단 운영기관장 1명과 특별전형 대상 예술단이 예술단원의 협의를 거쳐 1명, 관련 분야 협회 및 단체 추천 의뢰를 통해 1명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해 진행하도록 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5개 단체가 소속된 도립예술단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나 구체화 될 수 있다"며 "특별전형에 대한 빠른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제주도 문화정책과 및 여러 관계자와 논의한 끝에 의회가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성준기자

**마을에서 만나는 반딧불이 학교** 15일 오후 서귀포시 하원동 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와 (사)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가 운영하는 반딧불이 작은학교가 열렸다. 반딧불이 작은학교는 6월 한달 동안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 매주 금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법정사 일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만기자

## '수출 효자' 우뭇가사리 수확 막바지

### 성산지역 공동 채취 마무리 채취량 전년 대비 20~30% ↓

서귀포시는 성산읍지역에서 올해 5월부터 시작한 우뭇가사리 채취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역내에서 우뭇가사리는 성산읍 지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면서 시흥리, 오조리, 성산리에서만 우뭇가사리 공동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건조된 우뭇가사리 kg당 1만300원으로 대부분 상품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부산소재 우뭇가사리 가공공장에서 한천으로 가공돼 식용 및 약용으로 일본수출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수온변화와 환경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성산읍 지역의 한 해녀는 "바다에도 해거리 현상이 있으며 내년에는 대량으로 우뭇가사리를 채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뭇가사리뿐만이 아니라 해조류의 서식 여건 조성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패조류투석 사업과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 저소득 한부모에 자립정착금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만18세 이상)로 보장중지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00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1회만 해당된다. 문미숙기자

불승종 제주 사리사 준공법회

- 모시는 글 -

귀의 삼보하옵고, 안녕하십니까.
불승종 제주 사리사 준공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승종 제주 사리사 주지 사리 합장

일시 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0:00~11:20

장소 불승종 제주 사리사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2232-22)

▷ 연락처 : 강영숙(사리사 총무) 010-9840-9565

- 행사일정 -

| 구분 | 시간 | | 내용 |
|---|---|---|---|
| 1부 (대웅전 앞) | 10:00 ~ 10:10 | 10분 | 개회 사회자 인사 및 내빈소개 |
| | 10:10 ~ 10:13 | 3분 | 경과보고(양용보부회장님) |
| | 10:13 ~ 10:16 | 3분 | 환영사(신동운회장님) |
| | 10:16 ~ 10:19 | 3분 | 격려사(사리스님) |
| | 10:19 ~ 10:22 | 3분 | 격려사(송광스님) |
| | 10:22 ~ 10:25 | 3분 | 축사(각3분) |
| | 10:25 ~ 10:35 | 10분 | 준공기념 테이프커팅 |
| | 10:35 ~ 10:45 | 10분 | 기념 사진촬영 |
| 2부 (대웅전 안) | 10:45 ~ 11:15 | 30분 | 일광사 송광스님 준공법회 |
| | 11:15 ~ 11:20 | 5분 | 폐회 및 점심공양 |

*세부일정 일부 변경가능

仲宗寺 濟州禪院舍利寺

태양광 궁금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1:1 상담

"노는땅(1,500평 기준), 20년간 월 평균 5백만원 매출실현"

*단, 설치용량에 따라 매출은 변경됨.

가정용 태양광 A/S 전문

200여개 사업 실적 보유
제주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기업

(주)나눔에너지
064-745-0420 / 010-9779-5760
www.nanoomenergy.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소형 병의원에 적합한
상가임대

시민복지타운
정부합동청사 정문 앞 코너
1층 현 편의점 CU 자리
(실평수 35평으로 7월초 입점 가능)

단독 또는 분할 매장 모두 가능
(원하시면 CU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매장 가능)

가정의학과, 내과, 치과 등
소형 병의원에 적합
(정부합동청사, 연금공단, 상공회의소, KBS, 한국은행, 산업인력공단 등 상권에 병원 없음)

건물주(010-5538-1267)가 직접
임대 가능하게 조건 맞출 예정